

“순종의 결과”

창22:15-19

복이란 히브리어로 ‘ashar’(아사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실 때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로마서 10 장 17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도 결국에는 오직 말씀 하나 붙드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으로 난자야만이 네 후손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기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 생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에는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옫의 신앙도 이와 같았습니다. 옫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꼭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옫은 부활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은 끝이 될 수 없으며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험을 통해 다음 세상을 내다보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붙들었습니다. 현실적 한계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어떻게 뛰어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뛰어 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계를 이겨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믿음의 결과 =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복 주시며 하시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켜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하며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히 6: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 3:7-8**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순종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수 많은 별들과 같이 자손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좋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는 엄청나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예수그리스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참 된 복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되면 데려가실 뿐 아니라 우리 전체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따로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생사를 주장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국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수님 중에는 고함치르고 욕도 하시는 매우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려서 발로 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술실력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한국 최고의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 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위원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가 교수님을 만나 그 경위를 묻자 그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 생각했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을 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 가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 내가 회진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 나는 그때 '나라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 편안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그분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그 후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다."

신앙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원색적이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그래 고상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고 해도 건강하면 잃어버리면 고상한 것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도 평생을 지성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님이 실명의 위기에 갔을 때 지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따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결국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

"(히 5:8-9)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의 믿음의 삶의 최고봉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이룬 예수님처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인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 있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뛰어 넘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3. 2015 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현실적인 내 관점이, 부활신앙의 관점으로 새로워졌던 계기가 된 사건이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계기를 통해 뚜렷하게 구분된 내 삶의 관점의 변화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이무석 박사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위에 영향력을 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2015 년 성경통독이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서로 중간 점검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